

농어촌공사 경남본부 '제1회 지하수포럼' 개최

윤 최원태기자 | 승인 2025.03.25 17:41 | 11면

세계 물의 날 기념 '기후위기 시대 지하수의 역할' 주제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는 지난 21일 2025년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기념해 경남물포럼과 손잡고 제1회 지하수포럼을 열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손영식)는 지난 21일 2025년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기념해 경남물포럼과 손잡고 제1회 지하수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시대 지하수의 역할'이라는 주제 아래 ▲기후위기 시대 지하수의 역할, ▲대용량 지하수 미래수자원 확보 방안, ▲지표수와 지하수를 연계한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 ▲지하수 오염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제가 이어졌으며,

전문가들의 발제 후, 토론 패널들과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지하수를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손영식 본부장은"기후 변화로 인해 지표수의 가용성이 불확실해지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한 지하수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고 지하수를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극심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한 지표수와 지하수의 균등 이용이라는 시대적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지하수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공사는 향후 기후위기 시대에 지하수함양, 지하수댐 등 지표수와 지하수의 균등 이용을 위한 대책을 전문가 거버넌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약속했다. 최원태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원태기자